

특별기획



부안군자원봉사센터, 어르신

일반전 전달과 위로 방문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옥순)는 25일 노인여성회관에서 홀몸 어르신을 위한 일반전을 만들어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자원봉사센터 기쁨두배봉사단 15명이 정성을 담아 일반전을 만들고 읍·면 생활관리사 35여 명이 홀몸 어르신 147가 정과 조순 가정 37가정에 정성이 담긴 일반전을 배달하였다. 이옥순 센터장은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이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져서 그분들이 행복해 하실 때마다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일에 대한 너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서예교실

정명 600주년 기념 작품 전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서예교실(회장 김종열) 회원들이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아 기념글씨를 기부해 부안군청 5층에서 전시하고 있다.

노인회 부안군지회 서예교실은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주제(10월 24~30일)에 추진 중인 이번 전시에는 2016년 부안군 사자성어인 '부래 만복(扶來滿福·부애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을 비롯한 부안을 표현한 자자시 등 25점의 글씨가 전시되고 있다.

부안군지회 서예교실은 '청담진목회'라는 이름으로 28명의 어르신들이 일곱 이상근 선생님의 지도로 노인회 3층에서 매일 습작하며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서예교실은 그동안 틈틈이 갖고 닦은 솜씨로 매년 부안바실축제에서 1000여 명의 주민·관광객 가정에 가운을 써주고 있으며 올 초에는 2016년 부안군 사자성어인 '부래 만복(扶來滿福)'을 전 경로당에 기증해 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지역의 출산장려를 위해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작명하고 함께 한자로 써 전달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김제시(시장 이진식) 여성단체협의회 강순애 회장과 회원 70여명은 25일 경남 하동 펜션리조트에서 개최된 2016년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순애)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자 상호간의 화합과 소통 정보교류를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행사 중 첫날은 KPC 한국생각연구소 본부 전임강사이자 한국 리더십 코치협회 유망강사로 인지도가 높은 권영희 강사를 초청,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 리더십에 대한 강연에 이어, 스피치 코칭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강의로 유망세를 떨치고 있는 유경진 강사의 퍼실리테이션기법에 대한 역할실습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냈다.

둘째날은 생계사 문화탐방과 하동 차문화센터 다례체험, 최첨단택 담방 등 현장활동으로 이어져 한 해동안의 쌓였던 피로를 씻고 힐링하며 편안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강순애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각 단체 회장님과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지역의 참된 여성 리더로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에너지 사용지원 위한 업무협약

김제시, 한국전기안전공사·IG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관계 구축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25일 에너지 빈곤층 제로에너지 지킴집(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과 IG전자 이상봉 사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업무협약체결을 했다.

본 협약은 4개 기관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국민행복실현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사용지원 및 전기설비 개선 등 안전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김제시가 태양광설치 대상 가구 및 NGO단체로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병철)로 선정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고효율전기설비 보급 및 노후되고 낡은 전기설비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출동대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며 IG전자는 태양광발전설비, LED 전등 및 창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배분원칙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배분수행기사의 사업 관리 감독을 총체적으로

하게 된다.

에너지 사용지원 및 전기설비 개선 사업은 김제시 저소득계층 12세대 및 독거노인 그룹홈 1개소의 전기료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진식 김제시장은 "4개 기관이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하므로써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사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어르신, 행복한 웃음여행 함께해요”

김제시보건소, 그룹-홈 웃음치료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왼)은 지난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개소 그룹-홈(경로당) 입소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행복한 웃음 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웃음치료를 실시한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구성 이 핵가족화하고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을 맡고 있던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노인들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 87%가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 정신건강에 위협요인이 많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룹-홈 지원대상에서는 그룹-홈 입소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두뇌활동을 촉진함으

로서 우울과 고립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웃음치료를 실시한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라는

말처럼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웃음치료 내용으로는 첫째 월화, 수목,금토일 등 일주일간의 웃음에 담긴 내용과 뇌 활성화프로그램인 건강박스, 둘째 신체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전래놀이) 셋째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웃음치료를 실시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고 삶을 즐기면서 타인과 더 잘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자존감 확립뿐만 아니라 그룹-홈이 가장 가족 같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라북도의 정읍시가 후원하고 전북상인연합회가 주최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최근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 샘고을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성황리 종료

12명의 시민 노래자랑 펼쳐져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후원하고 전북상인연합회가 주최한 '와글와글 시장' 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가요제는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가요제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한 유성엽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 및 시민 1천여명이 참석

했다. 가요제에서는 최진희 등의 초청가수 축하공연과 함께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시민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또 행운권 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청소기, 온누리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됐다.

특히 가요제와 다양한 먹거리와 공예품, 문화상품과 국악과 가요, 댄스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야생(야)한 야시장을 함께 진행해 샘고을시장이 생동감 넘치고 지역특화형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

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품격 샘고을시장 상인회장은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 마인드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시장을 찾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샘고을시장 야시장은 여러 가지 특성과 방안을 마련해 더욱 더 발전하는 샘고을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내달 26일 오전 10시 50분 JTV 전주방송 와글와글시장이 풍요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야시장은 11월 12일과 26일에도 운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경찰, 하반기 체감안전 평가 도내 1위

범죄·교통사고 등 종합안전도 평가 우수, 5대 범죄 검거율도 3위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가 전북경찰청 자체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범죄·교통사고·법질서 등 도내 15개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체감안전도 조사는 지난 7월 6일~9월 2일까지 전화 설문조사로 부안 지역 일반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의 범죄·교통사고 안전도 및 범죄·법질서 준수도, 경찰 노력도 수준을 측정하는 조사이다. 도내 일반 국민 9,159명(1급지 40명, 2급지 35명, 3급지 30명)조사 결과 전반적 안전도 77.3점, 범죄 안전도 84.3점, 교통사고 안전도 71점, 법질서 준수도 69점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안경찰은 상반기에 실시한 체감안전도에서도 도내 5위로 상위에 포함 되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5년

평가에서도 상반기 1위(경찰청조사)를 차지했다.

부안에서는 또 5대 범죄 검거율에서도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과 함께 부안에서는 검거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치안활동 전개로 4대 사회와 근절과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 특히 교통사고 예방활동 주력 등 민생치안을 확립하려고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강현신 서장(사진)은 "체감안전도 1위에 만족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력체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공감 받는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해경, 가력항 내 해안가 오염물질 정화운동

부안해경서(서장 조성철)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5일 부안군 가력항 항 포구에서 부안해경을 비롯하여 부안군 농어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등 10개 기관과 120여 주민들이 참석해 해안가 정화운동을 펼쳤다.

그들과 어구 등 구분하여 정리하고 방파제쪽에 밀려든 병, 비닐,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 10여 톤을 수거했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한번 파괴된 해양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세계

류의 사용량을 줄이고 아무 곳이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이번 항 포구 정화운동과 더불어 어선 선지폐수 수거 운동, 방치산파의 체계적인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활동 및 집중단속 등 해양환경 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는 25일 정읍시종합경기장에서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생물 테러에 대비 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가졌다

정읍시,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

정읍시는 25일 정읍시종합경기장에서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생물 테러에 대비 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가졌다.

올해 처음 실시된 생물테러 대비 훈련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35사단 화생방지원단 105연대 4대대 8098부대, 정읍야산병원 등 10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 신고 과정에서부터 상황 전파와 긴급 출동 현장 통제, 정황 파악, 폭로자 대피, 환경 검체 채취 및 독소 다중 탐지 키트, 폭로자 및 환경제독, 검체 이송 등 생물테러 초기 대응과정이 실전처럼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특히 생물 테러 감시와

대비·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 및 개인 보호복(레벨C)착·탈의 경연대회도 함께 실시됐다.

보건소에 따르면 생물테러란 사회 붕괴를 목적으로 바이러나 세균 생물체 독소 등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통해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테러로 인한 환자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생물 테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읍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300-6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금산면 기관단체장협의회 재난대비 안전교육 실시

김제시 금산면 기관단체장협의회(회장 김민관 금산면장)는 지난 24일 금산19소방안전센터장을 주축으로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경주 지진과 울산 태풍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가을을 맞아 모야산을 찾는 등산객의 조난 대비책으로 마련되었으며 기관 단체장협의회 특성상 비상사태 발

생 시 협업을 통한 빠른 대응과 면내 결정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은 모야산 등산객 조난대비 구급약품, 구조용품 등의 현황파악과 표시정보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구조 훈련을 통한 안전 점검활동도 이뤄졌다.

/김제=곽노태 기자